

한국인의 미의식 변천과정과 복식미의 특질에 관한 연구

임 영 자 · 유 순 례*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의상전공 박사과정*

Special Character of the Korean Costume & Changing Process Aesthetic

Young-Ja Lim · Soon-Lye You*

Dept. of Fashion Design, Prof. of Se-Jong Univ.
Dept. of Home Economics, Doctoral Course of Se-Jong Univ.*
(2000. 8. 1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describe about aesthetic of korean art and costume. Therefore we understand the beauty of korean style well. Methods of this study are the analysis of the paper before published on the aesthetic and costume aesthetic. Especially in the global postmodern age, th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korean beauty and costume are very important. This study define of the special character. That is as follows.

- 1) Beauty of form
 - a. Harmony of line different character
 - b. Composition of plane make super space aesthetic
 - c. Beauty of asymmetric, non formal, freedom of dressed man
 - d. Beauty of symbolic color
- 2) Beauty of mind
 - a. Aesthetic of the north nomads feeling
 - b. View of the naturalism
 - c. Ceremony of confucianism
 - d. Preservation of original form, koreanization from heterogeneity

Key Words : Aesthetic, costume aesthetic, super space aesthetic, naturalism,
미의식, 복식미의식, 초공간적 미의식, 자연주의.

※ 이 논문은 1999년 BK21핵심분야 연구비에 의해 연구한 것임.

I. 서론

한국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간으로서 미의식에 대한 탐구는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의식 자체가 주관적 판단과 개인의 경험적 요소와 객관적 사회적 영향의 총체로서 정립되는 것이며 시대적, 사회적 시각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한 규정은 시대를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는 연구학자 개인의 성향에 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학문적 시야로 이끌어간 역사적 사회적 힘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문화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과정과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다양성의 가치공존 가운데 문화확장과 존속의 노력에 기인한다.

복식이 일상생활의 영위수단에서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까지 그 지위와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복식에 내재된 가치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학제간의 연구의 성과로 복식의 문화적, 심리적, 미적 의식의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최근 전통성, 한국적인 미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예술작품에 표현된 한국적 미의식이 어떤 성격으로 정의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연구하는 미학적 견해는 어떠하며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고찰하며 복식미학에서 정의한 한국적 복식미의 내용을 분석하여 새로운 미적 특질을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적이라고 평가되는 디자인에 대해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 언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복식 디자인이 현대사회에서 생활화되고 국제적 의복으로 디자인 될 수 있는 미학적 개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복식미가 아닌 한국 복식미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비평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II. 전통 예술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과 미학사조의 변천

1. 미의식의 변천

1) 한국적 미의식의 형성(BC1000-BC108 고조선 시대)

한반도에는 BC2만년을 전후한 후기 구석기시대에 북방 시베리아에서 이동한 고아시아족의 일부가 남하하여 한반도의 선주민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BC 5천년경 신석기시대에 다시 남하한 민족이 만주 일대에 정착하여 문헌상 예맥족, 예맥 통그스족으로 지역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들이 우리 민족의 직계모체가 된다. 신석기 중기(BC3000-2000)이후 한반도에는 농경문화가 유입되고 이전의 수렵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성격을 나타나게 된다. BC1000년경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요녕식 동검(비파형 동검)이란 주변과 구별지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양식이 출현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한국식 동검인 세형동검이 출현한다.¹⁾ 즉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한국적 미의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²⁾ 이 시기는 씨족, 부족적 집단들이 하나의 고대국가로 체계화되는 시기로 계급적 분화에 대한 권력의 상징성, 국가수립에 따른 양식의 차별화 같은 고대 미의식과 상징적 체계가 분화되는 시기였다. 이 단검은 실용의 목적도 있지만 귀족들의 장식용 성격도 강했으므로 미적 가치가 중요했을 것이다. 이들 단검의 상하 분할비례가 고조선의 미적 비례구도라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복의 실루엣과도 관련지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양식의 수립과 전개는 미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문화 성립의 한 징표이며 복식양식의 수립과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동기 유물로 청동제 오목거울이 중국과 다른 양식의 것이 있어 이시기부터 한민족의 미의식 체계가 수립되며 한반도적 양식으로 발전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³⁾

2) 한국적 성격의 정착(BC100-700 삼국시대)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여러 부족 국가가 생산력의 발전을 기반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체제로 정립되고 이들이 고대국가적 정치, 경제 문물이 정비됨에 따라 문화적 활동을 통한 국가, 민족적 성격이 서서히 발흥되었다.

고구려는 북방 수렵민족의 기풍을 바탕으로 인접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삼국중 가장 풍성한 미감을 전개해 갔다. 풍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여유있는 생활, 이에서 나오는 정교한 제천 의식은 웅대한 규모와 이에 걸맞는 미려한 미감을 전개해 갔다. 광대한 평원을 종횡무진 움직이던 운동감과 자유정신은 경쾌한 울동감을 표출했고 대륙적, 무풍적 기질을 전개해 갔다.⁴⁾

백제는 고구려민의 일부가 남하하여 건설한 나라로 한반도의 온화한 기후와 평탄한 산세, 풍부한 생산력을 지닌 땅을 배경으로 원만한 기질을 구사해 갔다. 백제인의 미감은 풍요로운 여유, 물 흐르는 듯한 자연성, 요란하지 않은 단아함, 고요함의 미감을 수립해 갔다. 낙천적 여유, 우아한 인간상의 추구는 한국미의 멋을 이루는 전통의 요소를 이루게 되었다.⁵⁾

신라는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타지방과 고립된 성격을 지녔으며 북방계 남하민으로 분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와 고독이 고신라의 고졸한 우울과 추상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자연주의와 결합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완전성에 대한 무집착의 표현성을 보여준다.⁶⁾

3) 지방색을 통일한 한국적 정서의 발현(700-900 통일신라시대)

7세기 후반 삼국의 균형이 깨지고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을 이루면서 북방의 광대한 영토가 한반도 이남으로 축소되었다. 이로서 북방의 광대, 쾌활, 역동적인 미감이 우리민족 정서에서 분리되고 균형과 안정의 미감이 우월하게 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정치적 질서는 지방색과 다양한 미감을 통합 조화시켰으며 당나라의 호화스런 문물의 도입은 미려하고 호화로우며 국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신라인의 독자적인 미감으로 세련화

되어 한반도에 찬란한 문화 창조의 시대를 영위해 갔다.

4) 한국적 미의식의 심화(1000-1400 고려시대)

후삼국의 분열을 통일한 고려는 골품제의 기반위에 유지되던 신라와는 달리 선종과 유교를 정신적 바탕으로 보수 귀족에 의해 고대적 체제를 극복하고 건국된 나라였다. 고대에서 중세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었으나 문화적, 정신적으로는 신라의 계승자였다. 고려시대에는 공예사상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만들어 냈으면서도 여전히 완벽에 대한 집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균형과 조화의 세련미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종교적 성향이 강해졌고 사실주의적 특성도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현실세계에 대한 미학적 견해를 갖게 되었다.⁷⁾ 따뜻한 느낌의 한국적 푸른색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적 정서를 토착화, 현실화시켰다. 예술을 향유하려는 풍부한 실용성, 현실성이 무작위적 창의성과 결합한 시기였다.

5) 한국적 정서의 어울림(1500-1900 조선시대)

고려에 대해 역성 혁명을 통해 건국된 조선은 중세를 벗어난 근세의 성격을 보여준다. 문벌귀족을 대신한 신흥 지식인인 양반이 조선사회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정치사상에도 주자학을 채택하여 학문과 사상의 규범이 되었다. 주자학은 조선에서 정교한 예학사상으로 분화되어 조선의 독자적인 유교문화를 발현시켰다. 철저한 계급분화와 함께 예술품 창조자는 장인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양반 관료사회와는 별도의 세계에서 미의식을 표출할 수 있었고 정성과 노고, 애정이 높이 평가받는 즉 장인 정신이 부각되었다. 이 시대의 미학은 정교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여러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평범의 세계를 추구하고 인공미를 배제한 자연미를 선호하였으며 현실을 긍정하고 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한국미학사상의 변천

동북아 문화권에서 미를 독립적으로 사유하기 시

작한 것은 대체로 근대에 들어와서부터였다. 물론 미학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미에 대한 사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에 대한 사유는 철학, 윤리, 종교 등과 분리되지 않은 채 예술의 부분적 이론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 진과 선의 가치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의 가치는 이것의 속성으로 인식되거나 매우 넓은 부문에서 통합적으로 걸쳐져 인식된 미관의 작용 때문이라 추측된다.⁸⁾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미학이 학문적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한국에 서양 미학이 소개된 것이 1920년대이고 이때의 미학은 식민주의적 관점과 배경아래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⁹⁾ 이것은 한국인이 아닌 일인 학자가 한국미의 연구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미를 해석했다는 성격을 받게 된다. 식민지 기간 중의 한국인 학자의 한국미에 대한 견해도 이후 시대와 뚜렷한 성격 차이를 보이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어렵게 태동한 미학은 이후 전쟁과 60년대를 거쳐 70년대 국학 정립 학풍을 맞아 이론적 정립단계를 맞았고 80년대 국학 전성기를 맞아 질적, 양적 확대를 이루다가 90년대 세계화를 대비하는 우리의 정신적 지지대로 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90년대 후반 세계화가 국가적 지향과제로 채택되고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가 전세계인의 사유체제에 통용되게 되자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가치기준을 제공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한국적 미학사유체제의 시대별 변천가운데서 그 시대가 가장 한국적이라고 추출해낸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1) 한국미학의 태동기(일제시대)

한국인으로 미의식이란 말을 처음 쓴 학자는 高裕燮(1940)으로 "삼국시대의 미의식은 靜止態의 힘이 아니라 무서운 힘으로 움직여 가는 運動勢에 있다."¹⁰⁾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민족 고유의 미적 체험의 구조분석이나 미적 가치의 의미해석을 위해 미학적 개념을 사용했으며 미학적 문제영역을 설정한 의의를 지닌다.¹¹⁾ 그는 한국미술의 형식미적 특

질을 비정제성, 비균제성 같은 파형의 형식에서 찾았다. 형식미의 필연적 전제라 할 수 있는 완전성, 명료성의 규범에서 벗어난 이런 경향은 도자공예의 파조적 형태, 창호의 평면적 입체 구성미,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의 배치의 균제성을 예로 삼고 있다. 이것은 상상력과 구성력의 자유로운 유희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설리의 유희충동과 무관하지 않은 근대적 미학의 개념이다.¹²⁾ 파형적 특질마저 미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소재와 형식이 결합되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않되는 형성적 진실과 현상적 필연에 근거하고 있다. 형식에의 자유의지와 형태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생성과정적 자발성이 일치된 결과로서의 재료와 형식(소재)이 혼연일체를 이룬 결합적 양상을 말한 것으로 그것은 결국 욕구와 규율, 체험과 표상의 하나됨을 말한다.¹³⁾ 또한 그는 우리말의 독특한 표현이 갖는 어원가치를 구사하였는데 아름다움이란 우리말은 미의 본질을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아름다움이란 '안다'의 동명사로 미의 이해작용을 표상하고 '다움'이란 형용사로 가치를 말하는 것이나 아름다움은 지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추상적 형식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생활감정의 이해작용에 근거를 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유섭의 의의는 우리 고유의 미적 체험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형이상학적 이념의 토대 및 미적 직관의 정신적 원리의 발견이다. 그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무관심성의 미적 체험이 자연과 예술원리의 합일에서 성립되는 미적 관조와 체험의 고양된 일치라고 했다. 자연, 예술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은 한국의 민예미적 특질을 이루며 이것이 한국미의 독특한 양상을 이룬다고 보았다.

야나기 무네요시(유중열:1922)은 일본인이지만 한국미의 본질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최초로 실현한 사람으로 식민화 되기 전 1914년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한국미술에 대해 크게 인상 받았으며 합방후 한국적 고유가치가 일본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당시 저널을 통하여 비판 및 저지운동을 하여 일본당국의 요시찰 인물이 되기도 했다. 1922년 조선과 그 예술을 발간하여 그가 규정한 정의가 한국미의 전형적 평가로 인용되었다. 그가 인식한 조선의 미는 비애의미, 선의 미, 심상의미, 평

범의 미, 막조작의 미, 중국에는 미와 추가 모두 없
어지는 세계에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움
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종교적 경지까
지 승화한 미로 정의하였다. 야나기의 미학은 사람
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었고 한국미의 본질을 규정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었으나 자연과 역사
란 환경적 요인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근원적
주체의 미의식을 규명하지 못했고 당시 식민지적
상황을 우월한 지식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감상적
논리라는 비판도 있다.¹⁴⁾ 더 나아가 한국의 사대성
과 숙명적 열등성을 강조하여 식민정치를 합리화
하려는 일체의 교묘한 문화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있
고 민예운동의 선구자로 민예개념을 정립한 문화
예술 철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⁵⁾

식민사관적 미학은 關野貞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
는데 1932년 조선미술사에서 메마르고 협소한 반도
란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독립할 수 없었고 견디기 힘
든 가혹한 기후로 작고 협소한 섬약한 미술밖에 만
들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¹⁶⁾

2) 한국미학 전개기(해방이후)

해방직후 1947년 조지훈은 한민족의 정신사를 정
리하고 새로운 건국의 시대 국민성을 새롭게 인식
하기 위해 한국문화사를 집필했는데 여기에서 한국
민족성의 기본구조요소를 평화성, 격정성, 적응성,
보수성, 수용성, 난숙성의 여섯으로 보고 여기에서
꿈, 슬픔, 힘, 멋, 끈기, 은근, 맵짠의 민족성이 나오
며 이것이 힘, 꿈, 슬픔, 멋의 미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원시부족국가에서 고대국가로 형성되는 초
기예술은 힘의 예술, 불교가 사머니즘적 원시종교
와 결합하여 꿈의 바탕이 되었으며 우리 예술의 고
전적 형태를 이루었고 꿈의 예술이 안의 힘을 상실
하여 슬픔의 예술이 되었으며 그것이 불균형 비대
칭, 정적의 미를 이루었고 세장한 선의 미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슬픔의 예술이 꿈에 치우친데 대한 반
발로 멋의 예술이 일어났으며 소박과 율동을 바탕
으로 유교적 선비사상과 은일사상이 근간이 되었
다. 이것은 소극적 저항, 자연귀의, 소박하고 구수한
가운데 아담한 풍류를 취하였다고 보았다.¹⁷⁾

50년 한국전쟁, 60년대 혁명동 혼란한 사회상 속

에서도 한국미학은 민족 정신을 조명하는 작업을
하고자 애썼다. 윤희순(1964)은 "민족의 예술의사
는 변천, 발전하는 것이며 선형적 영원성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한국미의 특색을 질적인미, 청
초한 색감, 선의 유동성, 청명한 조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매륜(1962)은 정직성과 강한 표현에 역점을
둔 선과 형의 미가 한국미의 특질이라 하였고 고평
츠(1963)는 형과 균형에 대한 위대한 감각, 켈첵
(1977)은 문양의 반복 배열, 표면장식의 선화화, 괴
체의 평면화를 한국미의 특질로 꼽았다.¹⁸⁾

김원룡(1978)은 한국 고미술의 실물과 유적에 대
한 고고학적 탐구의 결과로 한국미의 성격을 추출해
냈다. 한국미의 전면에 흐르는 공통정신을 대상을
자신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자연주의,
자신과 작품에 대하여 안심입명(安心入命)의
경지, 환경과 융합되는 조화, 원재료의 성격을 살리
는 것, 인공적 성격의 배제, 친근감, 부드러움, 조용
함, 적막감 이런 성격들이 모여서 자연에 적응하는
조화, 평범하고 조용한 조화, 모든 것에 무관심한 무
아무집의 철학을 만들어 낸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기(1984)는 한국건축의 특성을 고찰하여 미
의식을 탐구했는데 중근세 건축의 자연에 순응한 건
축 기법, 한국적 전통기법의 고수, 정착된 전통미에
대한 고집, 조형효과 없는 세부기술의 배척 이런 성
격을 통해 자연과 조화 의식, 전통에 대한 집착의식,
시각적 쾌락 추구 의식이란 미의식을 추출해 냈다.

문명대(1984)는 한국 조각의 미적 특징을 중세에
는 화려하고 고상함, 웅대 장려함, 단정 우아함, 추
상화된 토속미로 보았고 근세에는 평면적 조형성,
방향의 구성미, 비사실성의 추구로 구분하였다.¹⁹⁾

안휘준(1984)은 한국회화사를 통해 미의식을 추
적하였으며 밝고 명랑, 건강, 풍류적, 낭만적, 해학
적 정서와 여유로운 공간추구, 작은 것은 생략하는
대범성을 꼽았다.²⁰⁾

김복영(1991)은 한국 현대미술의 정신적 특질을
응전의 정신, 통합의 정신, 드러냄의 정신으로 해석
하였으며 이것이 서구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상황
을 주시하며 우리의 의도와 성향을 따라서 우리다운
것의 특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였다.²¹⁾

박용숙(1990)은 한국의 미학사상을 바시미의 구

조로 해석하는데 바시미란 건축용어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끼워 맞추어 잇는 것을 말하는데 음양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²⁾

김임수(1993)는 이제까지 한국미의 특질로 통용되었던 자연주의, 무기교, 자연등을 정신주의적 특색으로 해석하였다. 즉 첫째 외형보다 주체의 심성을 중시하여 비균제성 같은 파형의 형식미를 이뤄내는데 이것은 형식에서의 자유의지와 형성적 필연을 일치시키려는 특유한 정신적 욕구이다. 둘째 적조미, 구수한 큰맛등 미적 체험양상의 특질은 인격의 가치 창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활동 주체의 정신적 가치지향성을 포괄한다. 셋째 가치지향은 상징주의 신비주의 추상주의에 이르는 정신주의적 특색을 지닌다고 해석하였다.²³⁾

이동환(1997)은 개국신화의 분석을 통해 우리민족의 원초적 우주론적 세계관은 단일성임을 추출해냈고 이로부터 현세주의 인생관이 수립되었고 풍류도와 산수자연과의 국면에서 자연귀의 염원을 발생시켰으며 이런 거점에서 유학과 도학사상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였다. 우리 고대의 의례성향은 인위성이 강한 중국과는 다른 문화노선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성격이며 가무선호의 전통과 아울러 선적 미감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또 아름다움을 뜻하는 두 낱말 '좋은'과 '아름다운'에 대한 어원적 고찰로 전통적 미의식의 범주를 추적하고 있다.²⁴⁾

이상의 미학적 연구동향은 해방 전에는 정적이고 정서적인 정의에서 해방 직후 진취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다가 60년대에는 객관적 미론 수립을 지향하였고 70년대에 새로운 한국적 정체성을 모색하다가 80년대에 국학정립 화풍에 힘입어 질적 양적으로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0년대에 이르러 기존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III. 한국 복식미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한국 복식미에 대한 연구는 한국 복식에 대한 모든 연구와 함께 시작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대별로 그 성격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즉 70년대와 그 이전에는 실물분석과 원전 해석을 통한

연대기와 형태구분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미적 연구는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채 전체 연구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80년대에 비로소 복식의 미의식이란 용어가 등장하며 한국복식미에 대한 객관적 요인탐구와 풍속사적 연구, 변화 요인에 대한 고찰이 더해졌고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총체적인 정의가 이뤄졌다. 90년대에는 세분화된 미의식을 탐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특히 한국패션과 전통의 미의식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거나 한복 구성의 철학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²⁵⁾

그중에서 복식의 미적 성격을 정의한 6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자(1987) 한국복식미: 유교적 예의관, 체형을 의식한 복식미, 정신과 의복의 조화미

금기숙(1988) 한국복식의 미적가치: 자연미, 인격미, 벽사미, 전통미

최세완(1992) 형식미: 형태, 색채, 재질미, 내용미: 자연주의적미, 주술적미, 의례적미, 보수성향의미

임영자(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中和美, 老鍊美, 不二美

박미자(1996) 한복구성 철학: 소우주적 공간의식, 위상기하학적 조형성, 부분과 전체의 일체성

김윤희(1997) 유교적 금욕성, 절제된 순수성, 개방적 자연성, 은유적 관능성

김영자는 미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미적 가치 개념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금기숙은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개념을 구분하고 객관적 미론과 미적 태도론을 도입하여 미의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임영자는 한국미의식의 원류를 형성할 수 있는 동양적 사고체제를 탐구하였고 박미자는 한복구성법에 내재되어 있는 위상기하학적 원리와 동양철학체제를 밝혀냈다. 김윤희는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의 미의식을 통하여 전통성과 현대성의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복식의 미적 정의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적 의미론에 근거한 다양한 복식미의 탐구가 이

뤄졌고 한복에 대한 다양한 미적 정의는 한복의 다양한 성격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미학과 한국복식미의 연구 성과에 90년대 새로 해석된 한국미에 대한 새로운 미적 성격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한국복식미의 특질을 정의 하고자 한다.

IV. 한국복식의 미적 특질

한국복식의 미적 특질을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성격은 외부로 드러나 어떤 형태의 성격으로 나타난 시각적 요소와 내재된 정신적 요소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형태미

1) 서로 다른 성격이 조화된 선의 미

한국의미를 선으로 파악한 것은 유종열이었다. 그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형태, 빛깔, 선으로 보아 동양 삼국의 미감을 비교 파악하였다. 백제 관음입상의 기우한 머리와 어깨를 따라 몸의 발쪽으로 흐르는 모습은 형태가 아니라 선이라고 규정했으며 특히 드리워진 옷의 주름을 '흐르는 선'으로 표현했다. 도자기, 부채의 손잡이, 버선의 코, 손가락, 처마끝에서 한국적 정서의 곡선을 찾았고 버들과 학을 사랑한 것도 선을 사랑한 미감으로 보았다. 유종열의 선의 미학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미가 선의 미를 추구하고 있고 특히 복식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선의 미감에 의한 것이란 것은 많은 연구자들과 착용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동환(1998)은 우리민족 고대 의례행사에 가무의 전통이 있었음을 주시하고 이것이 생활속에서도 애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운율을 추구하는 성향이 선적미감의 애호로 이어졌음을 추적하고 있다. 가락의 곡조, 무용의 동작 이런 것들은 선중에서도 곡선의 意想으로 感受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조효순(1986)은 우리 옷의 아름다움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극치로 선의 미를 꼽고 있다. 저고리의 끈은 안깃과 걸깃이 이루는 사선이 만들어 내는 단정미, 정숙미 배래와 도련의

조화미, 고름의 생동미, 치마주름의 울동미, 도포자락 날림의 풍류미, 검무같은 빠른 움직임에서 나오는 뿌림의 미, 떨잠 족두리에서 보이는 떨의 흔들림에서 볼 수 있는 靜中動의 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선의 미는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직선과 곡선의 단정한 조화, 수직선과 수평선의 균형적 조화, 고정선의 대담한 공간 분할, 착장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선의 다양성, 인체의 신비함을 풍성한 여유로 감싸주는 실루엣, 이 모든 것들이 선에 의해 성립되는 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공간적 미의식을 생성한 무한 수용가능의 평면 구성의미

한복의 미학은 제작자의 조형미와 착용자의 맵시미가 하나가 될 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완전한 평면으로 구성된 한복은 착용하기 전에는 2차원의 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에 입혀지면서 3차원의 미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한복은 초공간의 개념에 해당되는 뫼비우스띠나 클라인병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절대공간을 가지고 제작되는 양복은 규정된 치수의 인체만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한복은 받아들이는 인체의 형태에 따라 공간이 가변적이다. 한계수용의 입체가 아니라 무한 수용의 평면인 썸이다. 옷의 위상범례적 변천순서는 인간의식 발전 순서와 같다. 위상범례적으로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포함한다. 한복바지를 위상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직선적, 평면적, 원기동적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류 의복 발달과정의 모든 관점을 다 포함하고 있다.²⁵⁾ 이것은 현재 하의에서만 고찰되고 있지만 한복 전체로 그 개념을 확대시킬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 한복의 평면 구성방식에는 초공간적 미의식과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원형보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3) 비대칭의 파형의 미, 입는 사람의 자율적 미

단순해 보이는 면의 분할과 담백한 색조를 보다 세련화 시키는 것은 부분적 강조와 대칭을 깨뜨리는 파형의 조형성이었다. 깃이나 끝동, 고름에 다른 색으로 주는 악센트, 과감하게 두른 검은 선, 고름과 깃이 만들어 내는 비대칭의 파형, 이런 것들이

전체의 형에 생동감을 준다. 또한 치마 여밈이나 옷자락의 휘날림 같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가변성과 우연성의 미는 무기교의 기교와 착장자의 의도가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미적 성격은 근대 의장의 모더니티와도 상통하며 우리민족은 일찍이 전통복식에서 서양복식의 근대성을 실현시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²⁶⁾

4) 상징적 색채미

한국복식에서 색채미를 크게 활용하는 경우는 궁중복식, 혼례나 명절 복식, 아동복의 경우이고 평소 생활에서는 소색과 담색을 애호했다. 색깔을 무척 아껴서 썼는데 이것은 그만큼 색깔에 의미를 준 것이고 색채미감을 중요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색채상징은 음양오행설을 따랐으며 두 색이 서로 상극을 이루는 것을 피하고 상생을 이루어 서로 보완,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2. 정신미

1) 북방 유목민의 정서

한복의 계통은 북방 기마 민족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분리식 바지착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하 분리식 의제는 상하의가 이어져 봉제된 철릭 심의 같은 옷에서도 그 비례의미는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하 분리식의 의제가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교가 생활규범으로 정착하여 남성포가 세분화된 조선시대에도 문관이 입는 도포에도 여전히 뒷자락이 갈라진 馬上衣의 의제가 남아있다.

2) 주객일체화를 지향하는 자연적 세계관

한국미의 특질을 자연주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은데 이는 자연의 모방, 친화, 귀의 등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적 자연주의는 자연에 순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객의 일체화를 지향한다. 한복의 직선 재단, 바느질법도 직물의 원형을 손상하지 않고 이어 붙이려는 시도이며 곡선 바느질한 시접도 잘라내지 않고 뒤로 꺾어 넘겼다. 옷이 일단 그 사람에게 입혀지면 그 옷은 그 사람의 연장이 되

어 어른의 옷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옷에는 그 복이 함께 담겨져 있을 것이라 믿어 옷을 함부로 바꿔 입거나 주지 않았다. 인간이 자연과 일체이듯 옷도 인간과 일체이며 그러므로 옷에도 인격을 부여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이는 유학사상이 발달하면서 정교해진 예학과 더불어 예의미로 발전되었다.

3) 단일적 세계관에서 발전하여 유교와 결합한 예의관

단일적 세계관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므로 땅에서 질서를 위해 예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의 예는 생존의 질서 즉 존재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유교적 의례적 예와는 본질이 다른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가 통치이념을 넘어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유교적 예학정신이 의식주를 지배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민족 고유의 예사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의관은 복식의 습의미, 격식미, 인격미, 상징미, 은폐미, 의례복식의 발달, 육중한 실루엣등 여러 가지 미적특징을 낳았다.

4) 이질적인 것을 한국화 시키고 전통을 보존해 가는 힘

한복구성의 가장 큰 특징인 평면성을 입어서 입체화시키는 초공간적인 힘을 가진 것이 한복이다. 즉 이질적인 것을 조화시킬뿐더러 우리화 시키는 힘이 있다. 백남준의 비빔밥미학 같은 것도 같은 힘이며 한민족의 힘이다. 각 재료의 맛과 영양이 살아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새로운 맛과 미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이 혼재된 상태에서도 전통은 그대로 계승된다. 수천년간 외래문화의 유입속에서도 한복의 원형은 그 맥을 가지고 계승되어 왔음을 볼 때 한민족의 원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집착성과 보존성이 또 다른 성격을 알게 한다.

V. 결 론

한국의 미의식은 청동기 시대에 주변국과 구별할 수 있는 한국적 조형감각이 성립된 이래 삼국시대에 한국적 성격이 정착되고 통일신라시대에 지방적

색채를 통일한 한국적 정서를 발현시켰고 고려시대에 한국적 미의식을 심화시켰으며 조선시대에 한국적 정서로 어우러져 오늘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미의식에 대한 해석은 해방 전에는 무관심, 무기교, 비정제성, 구수한 큰맛, 비에미, 애상의미, 심상의미, 선의미 같은 정의에서 해방후 자아의 배제, 자연과 융합, 무아무집 자연과조화, 순응, 전통미교수 응전, 통합, 드러냄 형식에의 자유의지, 정신적 가치지향 단일적 세계관, 현세주의, 자연순응, 선적미감의 미감을 낳았다. 미학 사조는 해방전에는 애상과 정서적 감흥 위주로 정의되던 것이 80년대에는 한국적 성격정의확립과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90년대에는 기존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새로운 견해가 덧붙여져 새로운 한국 미의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학적 해석과 기존 복식미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한국복식의 특질을 정의하였다. 즉 외적 형태미와 내적 정신미로 나누어 형태미는 1) 이질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는 선의미 2) 초공간적 미의식과 무한 수용가능의 평면적 구성의미 3) 비대칭과 파형의 미, 창작자의 자율적미 4)색채의 상징미로 나누어 보았고 정신미의 특질로는 1) 북방 유목민의 정서 2) 주객 일체화를 지향하는 자연적 세계관의 미 3) 단일적 세계관과 유교가 결합한 예의미 4) 이질적인 것을 통합하고 전통을 지켜가는 원형보존의 미적 특질을 발견했다.

이러한 성격을 부여한 이유는 한국 전통 복식미의 새로운 미적 요인을 찾아내어 한복의 미적 성격을 다양화하고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성격의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의식과 미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수용방식과 해석의 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복식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미적 가치의 발견과 해석이야말로 복식미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통시대적 시점전개로 개괄적인 조망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기에서 발견된 미적 특질의 정신성을 보완하고 각 시대별 인과 관계의 요인을 밝혀내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전통적 한국미의식의 현대적

재평가 작업을 이루는 것과 함께 전통적 미의식과는 다른 새로운 미의식을 창출하고 현대복식의 미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및 미주

- 변태섭. 한국사 통론. 삼영사. 1991.
- 조인규외. 조선미술사. 학민사. 1993.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일월서각. 1990.
- 문명대외. 한국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 탐구당. 1989.
-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사계절. 1997.
-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소나무. 1998.
- 김원룡. 한국미술사. 서울대출판부. 1993.
- 유종열. 조선과 예술. 범우사. 1989.
-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1995.
- 김상일. 초공간과 한국문화. 교학연구사. 1999.
- 김임수. 한국미술과 미학적 문제영역. 미학예술학연구 1집. 1991.
- 김임수. 한국미술과 정신주의. 예술문화6호. 1993.
- 이인범. 유종열의 초기 민예개념. 미학예술학연구 5집. 1995.
- 김복영. 한국미술과 전통과 창조. 미술세계 85호. 1991.
- 이동환. 한국미학사상의 탐구. 민족문화연구30집. 1998.
- 박용숙. 한국미술의 원형사고. 영대문화14호. 1981.
- 최옥자.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 복식1호. 1977.
- 손경자. 활옷의 형태와 문양에 관한 연구. 복식1호. 1977.
- 김영자. 한국복식미 연구. 세종대박사논문. 1987.
- 김영자.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6호.1982.
- 김영자.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의한 연구. 복식8호. 1984.
- 조효순.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복식10호. 1986
- 이명희. 근대한국복식의 변화요인. 복식5호. 1982
- 박성실. 적의 제도의 변천 연구. 복식9호. 1985
- 금기숙. 조선시대복식에 대한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 이대박사논문 1988
- 금기숙. 한국복식에 표현된 흔들림과 떨림의 미. 복식15호. 1990.
- 금기숙. 한국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19호. 1992.
- 최수현, 김민자. 복식의 미적 범주. 복식23호. 1994.
- 최세완, 김민자. 현대 패션에 포함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 석사논문. 1992.

- 김미자.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 복식15호. 1990.
 - 최윤미, 김민자. 복식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20호. 1993.
 -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21호. 1993.
 - 김윤희.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 박사논문. 1998.
 - 김희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복식이미지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9.
 - 박미자. 한복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1996.
 - 김윤희.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복식30호. 1996.
 - 임영자.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연구. 복식30호. 1996.
 - 진경옥.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복식31호. 1997.
- 1)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91 pp27-31
 - 2) 조인규 외 조선미술사 학민사 1993 pp36
 - 3) 전개서 pp33
 - 4) 김원룡 한국미술의 특색과 그 형성 1973
 - 5) 전개서
 - 6) 전개서
 - 7) 조인규 pp191
 - 8) 이동환 한국미술사상탐구 민족문화연구 30집 1997 pp25
 - 9) 문명대 한국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6-10
 - 10) 문명대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984 pp102
 - 11) 김임수 한국미술과 미학적 문제 영역 미학 예술학 연구 1집1991 pp9-10
 - 12) 전개서 pp13
 - 13) 전개서 pp21
 - 14) 전개서 pp13
 - 15) 이인범 유종열의 초기 민예개념 미학예술학 연구 5집 1995 pp148-150
 - 16) 김임수 전개서 pp22-24
 - 17)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 탐구당 1984 pp306-312
 - 18) 문명대 전개서 pp102-103
 - 19) 문명대 한국중근대 조각과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121
 - 20) 안휘준 한국회화와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1984 pp135
 - 21) 김복영 한국미술 전통과 창조 예술세계85호 1991 pp90
 - 22) 박용숙 한국의미학사상 일월서각 1990 pp3
 - 23) 김임수 한국미술과 정신주의 계명대 예술문화6호 1993 pp15
 - 24) 이동환 전개서 pp31
 - 25) 1977년 복식지가 창간이래 70년대에는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최옥자:1977) 활옷의 형태와 문양(손경자:1977) 80년대에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김영자:1982)에서 미의식이란 용어가 처음 나타났고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관한 연구(김영자:1984) 복식의 풍속사적연구(조효순:1986) 근대한복의 변화요인(이명희:1982) 적의 제도의 변천연구(박성실:1985) 등이 한복에 대한 조형적 분석과 사회문화적 접근, 변화요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복식에 대한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금기숙:1988)가 80년대의 집대성적 성격을 보인다. 90년대에는 한국종교복식에 대한 연구(임영자:1990) 한복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연구(박미자: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한국복식의 전통미(최세완:1992)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임영자:1996) 한국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등이 발표되어 한국복식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25) 박미자 한복에 나타난 위상 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1996 PP89-98
 - 26) 김윤희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복식 30호 1996 pp131-132